

經營學의 一分科로서의 國際經營學의 性格과 課題

黃 一 淸*

<目 次>

- | | |
|-------------------|------------------------------|
| I. 國際經營學의 登場 | III. 經營學研究 및 教育上의 位置 |
| II. 外國의 國際(企業)經營學 | IV. 우리나라에서의 國際經營學研究 및 教育의 方向 |

I. 國際經營學의 登場

60年代 以後 急速히 增大된 世界交易量 및 國際協力關係의 增大로 國際的 次元의 經營學分野의 研究가 國際經營學과 더불어 새로이 登場되었다.

즉, 貿易論, 外換論, 國際마케팅, 國際金融論 그리고 多國籍企業論 등의 科目이 이것이며 經濟學의 領域과 一部가 相衡되면서 大學의 正式科目으로 設講되기에 이르렀으며 國際經營學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科目들은 急變하는 국제환경속에서 海外製品市場의 擴張을 위한 제반 필요조치, 原料 확보, 加工, 金融, 技術 등 國際分業 및 競爭과 관련해서 생기는 諸問題 그리고 새로이 國際舞臺에서 논의되는 技術協力, 投資, 建設, 用役, 管理問題 등이 새로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점차 大學에서 그 重要性이 인정되게 된 것이다.

II. 外國의 國際(企業)經營學

國際經營學이라 함을 英語로는 “International Business”라 말하는 것이 常例이나 이 번역이 그 어느 便으로도 꼭 맞는 것은 못된다. 특히 外國에서 出版된 關係教科書들을 살펴 보면 대체로 세가지 方向으로 나누어 짐

* 漢陽大學校 教授, 經營大學院長

을 본다.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廣義의 管理에 屬하는 것으로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Corporation)의 管理를 中心한 것이며 오늘날 美國의 “International Business”라 이름 붙은 冊들의 大部分이 이에 屬한다. 또한 管理에 焦點을 맞추되 各國의 管理를 比較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둘째는 國際金融問題를 中心으로 國際的 資本移動의 側面에서 投資의 선택문제를 따지고 投資 對象國家의 투자분위기 및 환경을 논의한다.

세째는 國際마케팅이며 貿易을 포함해서 市場開拓, 原料市場 그리고 輸入當國의 輸入 마케팅問題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을 본다.

이들 세가지 研究方向에서 共通된 것은 첫째, 國際的 環境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國際的인 接觸이라는 特殊性때문에 생기는 特殊問題를 記述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째, 國際的 去來로 인하여 생기는 節次上: 內容 등의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미 發刊된 책들의 內容은 大體로 記述的인 性格의 것이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것이고 또 問題를 皮相的으로 羅列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나 國際經營學이 한 學問으로서 科學的 分析의 對象이 되기 위한 理論的 研究의 色彩는 별로 찾아 보기 어렵고 이 연구가 더우거나 「學際的」 研究가 되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Ⅲ. 經營學研究 및 教育上的 位置

이러한 學問으로서의 位置가 아직 定立되지 못한 것을 보는 가운데 經營學의 研究와 아울러 생각해 보면 이 國際經營學이 經營學의 一分科로서의 地位를 차지하려면 經營學의 概念과 符合시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여기서 經營學을 企業이란 特殊組織의 諸行爲에 관한 研究(主로 管理問題를 對象으로 한)를 하는 學問이라 보고 이에 派生된 것으로 마케팅, 投資論, 交通論, 保險論 등을 이해한다 하면 國際經營學은 당연히 多國籍企業, 또는 貿易을 中心으로 活動하는 企業, 全作企業, 國際的 金融企業 등의 어느 하나 또는 全體가 研究의 對象이 되며 이들의 活動을 抽出한 複合的 企業들의 活動을 인식한 概觀的(어느 의미에서 막연한) 對象을 國際經營學이라 하기가 어려워진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際마케팅은 마케팅의 一部이나 또는 國際經營學의 一部이나? 또는 雙方이 다 內包된다 하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規定지

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國際金融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될 것이며 더우기 經濟學과의 관계를 따져 본다면 더욱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가 經營學의 概念規定을 如何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나 學問의 對象과 그 研究되어야 할 範圍가 規定되고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國際經營學이 經營學이 지닌 科學性이 희박하다는 批判의 정도 보다 훨씬 더 批判을 받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아직도 理論定理가 안되고 있다는 點에서 문제가 많은 學問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이 科目을 大學에서 開講한다 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첫째는 이 과목을 강의할 때 學問의 內容性格上 여러 事實과 現象을 理解하고 있을 것이 前提가 되는 바 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따라서 理解되고 있지 못하면 皮相的인 記述的 說明에 그치게 되며 한 學期科目으로는 도저히 이해시키고 所期의 成果를 거두기가 어려워진다 하겠다.

둘째는 위의 事實이 결국 國際經營學이 社會科學 全般에 걸친 學問을 토대로 강의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한 걸음 더 나아가 經營學 기초과목의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비로소 效果的인 教育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擔當한 教授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것을 강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에 따라서 이 과목의 전개가 크게 差異가 생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과목은 경영학의 一分科라 생각되면 또한 自體의 實踐的 要求가 강하게 作用하므로 高度의 分析的 能力의 培養이 요구되는 것인바 科目을 分析的 研究의 水準으로 끌어 올리기에는 아직은 研究된 量이나 質이 不足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研究가 實效를 거두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自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國際經營學의 문제라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에서의 國際經營學研究 및 教育의 方向

이 과목의 인구를 위하여 여기 제의하는 바를 몇가지 들면

1. 이 과목에 관계된 內容의 研究와 事例研究의 着手

2. 研究의 焦點化

- ① 國際市場환경
- ② 原料市場환경
- ③ 戰略的 研究—總會商社, 프렌트輸出 등

3. 學問의 體系化를 위한 계속적 究究

또한 이 科目의 教育은 論者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이끌어질 것이 기대된다.

- ① 學部에서 강의될 때는 세미나 形態로 또 各論中心으로 이끌어짐이 當분간 기대됨.
- ② 可及的 이 과목은 大學院生들에게 강의됨이 效果的임.
- ③ 이 과목은 따라서 分析的이고 問題解決을 中心과제로 삼고 논의됨이 바람직 함.

이러한 方向에서 우리나라의 國際經營學의 研究와 教育은 신중하게 積極적인 努力傾注로 점차 그 내용을 科學的인 分析이 土臺가 되어 理論化된 科目으로 이끌어질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